

2023년 3월 26일 “예수님의 비유(34) 새 술은 새 부대에”(눅 5:36-39)

새 포도주(구원의 생명)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생명(삶)을 담은 새 시대와 새 틀

성도는 예수님 믿고 얻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랄 것(성화)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옛 삶과 방식 속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반면 생명은 새로운 영적 환경, 즉 예수님 이후 열린 새 시대와 새로운 말씀의 틀에서 바르게 성장합니다.

(1) 새 시대

예수님 이전(BC)에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시대를 마치고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의 지배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2) 새 틀

성령의 새 시대에 들어온 성도들은 새로운 영적 그릇 속에서 성화라는 생명의 변화를 입게 됩니다. 이 그릇은 예수님께서 압축하고 특화시켜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마 22:37-40).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새 계명 안에서 풀립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말씀으로 결정화 시켰고, 바울과 야고보도 ‘네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에 모든 율법을 축약시켰습니다(롬 13:9, 갈 5:14, 약 2:8).

새 시대 안에서 새 계명은 영생의 부요함을 얻는 길이며,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유대교가 담을 수 없는 메시아의 사역

오늘 비유는 유대교가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담을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어떤 율법 조항은 수정, 삭제, 확장하며, 어떤 조항은 초월 시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원래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게 하는 청사진의 역할을 간과하면, 결국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 율법을 들이대며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을 과잉 신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였습니다(안식일 논쟁, 금식 논쟁 등).

[3] 우리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안에서 산 것처럼, 우리는 옛 삶의 방식인 도덕주의와 완벽주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도 옛 삶의 기준으로 사람과 사물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생명을 자라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새 시대의 성령의 도우심과 새 틀의 중심인 예수님 계명에 의거해야만 새 생명의 평안과 자유를 얻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나요? 언어를 점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덕주의 완벽주의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좀 더 잘, 좀 더 많이, 좀 더 착하고 멋지게'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조금 더'라는 말은 끝없는 불만족을 품고 있으며 기저에는 아직 인정과 칭찬과 사랑받기에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현재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 시대, 새 틀 속에서는 행동과 성취가 아닌 존재를 받아주고, 기뻐하며 기다려줍니다. 그 존재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비교의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 계명에 입각한 삶은 이웃 사랑을 목표로 하므로 이로부터 생명의 능력과 축복을 피워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해도 자신이 받아들여졌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인정받을 때 많은 강박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판단과 지적과 정죄의 말에 치우쳐 있는가, 수용과 인정과 평안의 말에 치우쳐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 거듭난 생명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생명을 피워내는 삶으로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의 일상적인 언어를 점검해 봅시다. 도덕주의, 완벽주의에 입각한 말과 새 계명에 입각한 말 중 어디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까?
2.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을 때와 새 부대에 담을 때 대조되는 결과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